

오피니언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안톤 솔츠



서양에서 '도그 데이즈(dog days - 직역: 같은 날들)'는 여름 중 가장 덥고 습기가 많은 날을 뜻한다. 더위가 계속되는 요즘 잠자리에서 일어나 맞는 아침 그 자체가 고통과 같다. 어떤 일도 하기 싫을 정도의 고통스런 열기와 높은 습도 때문에 온 몸의 힘과 에너지가 쑥 빠져나갈 정도다.

이런 날씨와 맞서기 위해선 산으로 여행을 떠나 시원한 개울을 다리 밑에 눕는 게 상책인 듯하다. 아니면 그것도 아니라면 개고기를 먹는 일로도 더위를 대신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일까? 영터리 주장이라는 것이 명백하지만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개 같은 날들'의 의미는 한국으로부터 온 것일 수도 있다. 그것도 수세기 흘러 오면서 아주 더운 여름 날 동양의 학에 따라 몸의 열을 식히고 여름에서 기를 보충하기 위한 방법으로 말이다.

근래 들어 부쩍 나의 절친한 친구들이 함께 영어로 '도그(dog-개)'를 먹으려 가고 싶은지 물어왔다. 당연히 영어로 들어도 그것이 길에서도 사먹을 수 있는 핫도 그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다.

물론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개고기를 먹

는데에 부정적일 것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친구들이 조심스럽게 주저하며 얘기하는 것이 보통 있는 일이다. 그러나 사실 나는 몇 차례 이미 개고기를 먹은 바 있으며 그걸 먹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여러로부터 늘 집에서 친구와 가족과도 같았던 개들과 살아온 내가 이렇게 개고

면서 단지 개고기를 먹는 것을 애만인 정도로 생각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나의 이런 얘기에 개는 매우 영리하며 인간과 가장 가깝게 살아온 동물이기 때문이라고 반박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안다.

영리한 동물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돼지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돼지가 개보다 영리하다는 것을 아는가? 내가 개고기를 즐겨 먹지 않는 이유는 좀 더 맛있는 고기를 만들려는 의도로 개들에게 고통을 주며 죽이진 않을까하는 우려 때문이다. 개고기는 일반적인 다른 육가공품과 달리 정확한 취급 법규 등에 의해 통제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사육하고 도살

환경에서 동물을 사육하고 고통없이 빠르게 죽인다면 개를 먹는 것이 수치스럽게 여길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이나 다른 외국 기관이나 단체들이 개고기 소비를 금지도록 하려는 요청이 있어왔음을 기억한다. 당시 나는 그들의 그러한 요구에 몹시 화가 났었다. 내가 개고기를 먹고 또 먹어야 해서가 아니라 그러한 요구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무례하고 다른 나라의 음식문화에 대한 무지에 의한 간접성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만약 이슬람 국가의 기관들이 그들의 종교 때문에 런던올림픽 기간 동안 국민들이 돼지고기를 먹지 말고 술도 마시지 말라고 요구한다면 영국은 뭐라고 할 것인가?

그런 요구는 아마 영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항의와 격노를 불러 일으킬 것이다. 그러나 당시 한국인들에게 개고기를 금지시키는 일은 항의의 불꽃을 일으키진 못했다. 오히려 한국 정부는 고개를 숙이며 식당들을 숨기는데 급급했다.

동물보호와 종 보존을 위해 고래를 포획하는 것이 창피한 일인가 되자 포장마차와 특수한(?) 식당의 테이블 위에 그 고기들이 놓여 있게 되었다. 고래, 개 말고 다른 동물은 국제적으로 보호해야 할 종이 아닌가? 작은 뱃골목 어딘가에서 숨듯이 비밀리에 먹어선 안 될 것이다. 어쨌든 지금은 삼복 더위 때니….

〈코리아 컨설트 대표〉

복날과 개고기

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내 한국인 친구들과 외국인 친구들이 더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다.

그래서 말인데 나는 정말 개들을 사랑한다. 다른 동물들 역시 사랑하고 내 어린 시절엔 토피며, 새들이며 다양한 다른 동물들과 한집에 살았었다. 나는 그들을 무척 사랑했지만 그렇다고 나는 채식주의자가 되지는 않았다. 작은 토피가 얼마나 예쁜지 알지만 그와 달리 맛있는 토피 요리가 얼마나 많은지도 알고 있다. 작은 돼지는 또 얼마나 귀여운가. 큰 눈망울의 어린 송아지는 또 어떻고?

그러나 거의 모든 종류의 동물을 먹으

해야하는지 모른다.

요즘 사람들은 개를 때려서 죽이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사실이길 바란다. 그러나 지금 아파트에 살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광주의 내 이웃집에서는 매년 봄마다 작은 강아지를 여름에까지 키워 먹었다. 나는 개가 맛고 죽어가는 소리를 들어야만 했는데 그 소리는 참을 수 없는 공포와 고통 그 자체였다.

결국 나는 그 집 앞에 가서 집주인이 개를 때리는 것을 멈출 때까지 대문을 거세게 두들겨 댔다. 내가 결코 그 개를 살려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그대로 있을 순 없었다. 그래서 좋은

환경에서 동물을 사육하고 고통없이 빠르게 죽인다면 개를 먹는 것이 수치스럽게 여길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이나 다른 외국 기관이나 단체들이 개고기 소비를 금지하도록 하려는 요청이 있어왔음을 기억한다. 당시 나는 그들의 그러한 요구에 몹시 화가 났었다. 내가 개고기를 먹고 또 먹어야 해서가 아니라 그러한 요구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무례하고 다른 나라의 음식문화에 대한 무지에 의한 간접성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만약 이슬람 국가의 기관들이 그들의 종교 때문에 런던올림픽 기간 동안 국민들이 돼지고기를 먹지 말고 술도 마시지 말라고 요구한다면 영국은 뭐라고 할 것인가?

그런 요구는 아마 영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항의와 격노를 불러 일으킬 것이다. 그러나 당시 한국인들에게 개고기를 금지시키는 일은 항의의 불꽃을 일으키진 못했다. 오히려 한국 정부는 고개를 숙이며 식당들을 숨기는데 급급했다.

동물보호와 종 보존을 위해 고래를 포획하는 것이 창피한 일인가 되자 포장마차와 특수한(?) 식당의 테이블 위에 그 고기들이 놓여 있게 되었다. 고래, 개 말고 다른 동물은 국제적으로 보호해야 할 종이 아닌가? 작은 뱃골목 어딘가에서 숨듯이 비밀리에 먹어선 안 될 것이다. 어쨌든 지금은 삼복 더위 때니….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고

여름은 자연이 살아있는 농촌에서



손영호

'힐링(healing)'을 휴가의 키워드다. 최근 힐링이 새로운 트렌드로 뜨고 나면서부터 힐링 카페, 힐링 푸드, 힐링 뮤직 등 무조건 '힐링'을 붙여야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인기를 끌고 있는 한 방송국의 '힐링캠프'는 출연자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말하기 쉽지 않았거나, 숨기고 싶었던 부분까지 감정을 솔직히 드러내 스스로에게는 치유와 극복 그리고 시청자에게는 친근감을 준다.

여행 관련 자료를 보니, 작년 여름 휴가 여행의 트렌드는 '걷기와 체험', '친환경' 그리고 혜진인에게 도움이 되는 '공정' 이렇게 3가지였다. 올 여름 휴가는 여기에 몸과 마음의 치유라는 개념을 더하는 '힐링'이 대세로, 과거 잘 먹고 잘 사는 개념의 '헬빙' 트렌드 이후 가장 빠르게 대중 속으로 확산되고 있다.

가장과 직장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 현대인들이, 자연의 아름

다움을 감상하고 소문난 맛집의 음식만 먹고 돌아오는 단순한 여행에서 벗어나는 것이 힐링여행이다. 농촌에 산재한 유·무형의 전통문화를 체험하면서, 가족간의 정을 돋우고 하루 또 자연과 함께하는 휴식을 통해 도시생활에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등 여가문화가 변하고 있다.

달마지, 향매실, 이슬촌, 도선국사, 왈인촌, 거북이, 자리뫼…, 인듯 무슨 지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래전부터 간직하거나 전해 내려오는 특색과 전통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의견들이 집약된 마을명이이다. 지난해의 경우 도내 농촌체험마을 방문객은 총 126만명에 이르고, 소득은 131억원으로 집계돼 마을당 평균 약 1억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농촌체험관광이 농가소득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최근 농림식품부에서 도시민을 대상으로, 올 해 여름휴가지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87%가 농촌을 희망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자녀에게 농업·농촌의 소중함을 알려주기 위해서가 4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친척이 농촌에 거주해서, 휴가비가 저렴해서 순으로 응답했다.

이처럼 농촌은 도시민에게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 친환경 마을과 몸을 치유하는 휴양지로서 국민정서 순화와 생태계 유지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도시민과 농업인이 훈훈한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는 매개체인 것이다.

우리 도에서는 마을단위로 사무장 체용을

지원해 농촌체험마을을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올 여름휴가 기간 동안 주차장과 마을주변 환경정비는 물론 민박시설 청결상태를 수시 점검하여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다.

또 주방 종사자의 위생복과 모자 착용, 이불커버 1일 1회 사용 후 교체 등 찾아오는 도시민이 괴적인 환경에서 남도의 평균과 고향의 맛깔스런 음식을 느끼고 쉬어 갈 수 있도록, 세심한 부분까지 정성을 다해 손님 맞이 준비를 해왔다.

전남은 깨끗한 공기와 맑은 물이 있고 안전한 청정 먹거리와 한옥의 숙박시설이 있으며, 지역마다 특유의 전통과 문화가 산재하여 전국 제일의 힐링여행지라고 자타가 인정하고 있다.

광양 백운산과 장성 축령산 등 17개소의 치유의 숲은 공기 비타민이라고 불리면서, 면역력 강화와 노화방지에 도움을 주는 음이온이 도보보다 10배 이상 많고, 스트레스 해소에 탁월하다는 평론이다.

열대야가 밤을 설치해 하는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라 할 수 있다. 녹색의 땅 전남의 농촌체험마을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맛보면서, 자녀들과 밤하늘 별을 헤는 추억을 만들자. 멋스러운 한옥에서 낮잠에 빠져 보다가 또 테마가 있는 치유의 숲에서 삼립육을 통해 심신에 위로와 휴식을 선물하자.

〈전남도청 농업정책과장〉

기고

폭염·벌쏘임 환자, 119에 즉시 알리세요



문태희

장마가 끝나자 연일 찜통더위가 이어져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불볕더위에 쓰러지는 환자가 잇따르고 있다. 이러한 이상 더위는 지구 온난화 현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현대 온난화의 원인은 온실가스의 증가에 있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지구 온난화 영향에 따른 환경변화로 해마다 여름이 상승하면서 폭염으로 인한 열 손상 환자 발생과 벌쏘임 환자의 경우 과민성 쇼크(anaphylaxis shock) 발생으로 호흡기의 혈관부종으로 기도가 폐쇄돼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등이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방관서에서는 '안전한 여름나기 폭염대비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 대부분이 24일 낮 기온 30도를 웃돌면서 이날 오후 7시경에 비닐하우스 안에서 참외 따기 작업을 하던 노부부가 사망하였고, 오후 2시쯤 충북 옥천군 청성면의 모 교회 앞에서 잡초를 베던 이 교회 목사 김모씨(59)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으며, 오후 6시 55분경에는 전남 해남군 삼면면의 한 텅터 안근에서 이모 씨(여, 83)가 숨져 있는 것을 딸이 발견해 119에 신고하는 등 폭염으로 추정된 사

고들이 속출하였다.

세계적으로 폭염에 의한 대표적 피해사례는 2003년 8월에 있었던 프랑스와 스페인의 폭염을 들 수 있다. 당시 한낮 기온이 40℃를 넘나드는 갑작스러운 폭염으로 무려 3만 50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이후 세계 각국에서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면서 폭염을 허우나 태풍처럼 자연재난의 하나로 인식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08년부터 기상청에서 정식으로 특보를 발령하고 있다.

이런 정책의 배경은 다원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농업·농촌을 지속 유지하고, 농업소득 만으로는 개방화 시대에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없다는 인식이 끌려 있

상이 발생 시 119에 신고하여 가까운 병·의원을 방문하여 조기에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한다.

말벌의 개체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독성이 강한 말벌이 쏘이어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벌쏘임 환자는 도시민에게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 친환경 마을과 몸을 치유하는 휴양지로서 국민정서 순화와 생태계 유지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도시민과 농업인이 훈훈한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는 매개체인 것이다.

우리 도에서는 마을단위로 사무장 체용을

주사약 처방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전남 소방본부에 따르면 올 1월~7월까지 벌집 관련 출동건수는 80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33건)에 비해 약 27%가 증가하였으며, 연일 일선 소방서의 벌집 관련 출동이 구조출동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독성이 강한 말벌이 주민을 위협하자 소방서마다 말벌집을 제거해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어 업무가 마비될 경지다. 벌에 쏘이는 경우는 심하게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

행정기관이 철저한 예방과 대책을 수립하여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사병 등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 폭염이 집중되는 낮 12부터 오후 3시 사이 되도록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작업하는 경우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가 필요하다. 또한, 무리하게 말벌집을 제거하는 행동을 삼간다면 무더운 여름을 슬기롭게 해쳐갈 수 있을 것이다.

〈화순소방서장〉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FAX 062-222-4918/E-mail opinion@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시설

'몰염치' 진보당 광주서도 탈당 이어져

통합진보당의 부정·폭력사태와 당권파, 비당권파 간의 막가파식 갈등을 바라보는 광주·전남 지역민의 눈길이 싸늘하다. 연말 정권 교체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느냐는 우려와 함께 '몰염치' 진보당은 비단 고를 받은 정도가 아니라 사망선고가 접점된 것과 다름없다"고 밝힌 것으로 이전 이유에서.

지난 4·11총선에서 2명의 국회의원 배출과 16% 이상의 지지를 보냈던 지역민들로선 진보당의 위기에 대처한 심경 뿐이다. 지난 10년간 지역에 뿌리를 내렸던 진보당의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진보당은 당권파·비당권파 간의 갈등을 속히 접고, 대화와 타협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지도부는 뼈를 깎는 자세로 혁신적인 수습책을 통해 당이 거듭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임 전 위원장은 국민참여당 출신으로 당내 비당권파로 분류된다. 진보당 광주 시당 진성당원(남비 남부당원) 3500여 명 가운데 참여당계는 10% 가량인 350여 명으로 추산된다. 임 전 위원장으로 탈당으로 광주에서도 참여당원들의 심경을 짚었다.

임 전 위원장은 국민참여당 출신으로 당내 비당권파로 분류된다. 진보당 광주 시당 진성당원(남비 남부당원) 3500여 명 가운데 참여당계는 10% 가량인 350여 명으로 추산된다. 임 전 위원장으로 탈당으로 광주에서도 참여당원들의 심경을 짚었다.